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4. 2.(화) 09:00 < 4.2.(화) 석간 > 배포 2024. 4. 1.(월)

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.5억 달러, 역대 최대 신고금액 경신

- 제조업 투자 전년 동기 대비 99.2% 증가, 비수도권 투자 63.9% 증가
-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위상 재확인

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.1% 증가한 70.5억 달러를 기록하며,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. 도착 기준으로는 18.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* 신고금액(억달러) : ('20.1Q) 32.8 → ('21.1Q) 47.4 → ('22.1Q) 54.5 → ('23.1Q) 56.3 → ('24.1Q) 70.5
도착금액(억달러) : ('20.1Q) 30.2 → ('21.1Q) 44.7 → ('22.1Q) 49.7 → ('23.1Q) 36.7 → ('24.1Q) 18.5

【업종별】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.2% 증가한 30.8억 달러를, 서비스업은 2.5% 감소한 38.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·전자(14.5억 달러, +113.5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5.4억 달러, +49.2%), 화공(3.4억 달러, +69.5%)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,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·보험(21.9억 달러, +34.3%)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다.

【국가별】 미국, 유럽연합(EU)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*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.4%, 69.8% 감소한 7.2억 달러, 5.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일본,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.8%, 146.7% 증가한 11.3억 달러, 21.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* A社(서비스·M&A, EU) 10.5억 달러, B社(제조·그린필드, EU) 3.0억 달러 등

【유형별】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.1% 감소한 38.6억 달러를, M&A 투자는 115.4% 증가한 31.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

【평가】 세계경제 성장 둔화, 고금리,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(연간 327.2억 달러)에 이어 2024년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통상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중 1분기의 비중이 20%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(30.5억 달러) 이후 20년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.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'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'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

특히,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루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99.2%로 대폭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체감되는 경제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.9% 증가한 22.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엄재영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형 (044-203-40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상세 동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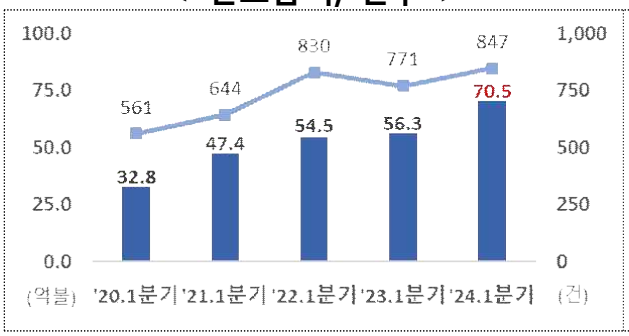
Ⅰ. 총괄

□ **(실적) 역대 1분기**(1~3월) **최대 신고금액**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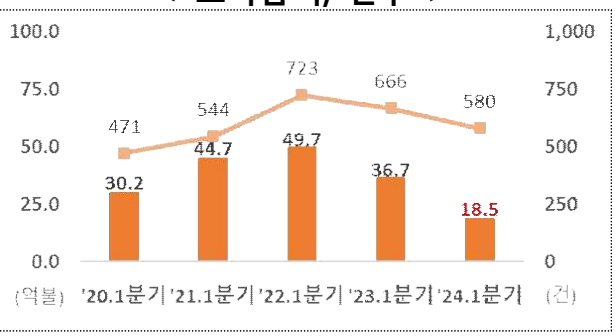
○ **(금액) 신고 70.5억 달러**(전년동기 대비 +25.1%), **도착 18.5억 달러**(△49.6%)

○ **(건수) 신고 847건**(+9.9%), **도착 580건**(△12.9%)

< 신고금액, 건수 >



< 도착금액, 건수 >



□ **(평가)**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'23년(연간 327.2억 달러)에 이어 **'24.1분기는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**하면서 **외국인 투자 호조세 지속**

○ 1분기 신고금액 **최초로 70억 달러대** 진입, '04년 1분기(30.5억 달러) 이후 **20년만에 신고금액 규모가 2배 이상 확대**

○ 세계경제 성장 둔화*, 고금리, 고환율** 등 **어려운 여건 속**에서도 **우리나라 투자환경**에 대한 **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 굳건**

* 경제성장률 전망('23년 → '24년, WB) : (세계) 2.6% → 2.4%, (美) 2.5% → 1.6%, (EU) 0.4% → 0.7%, (日) 1.8% → 0.9%, (中) 5.2% → 4.5%

** 1분기(1~3월) 평균 원/달러 매매기준율 : ('20.1Q) 1,195.1 → ('21.1Q) 1,115.0 → ('22.1Q) 1,205.7 → ('23.1Q) 1,279.6 → ('24.1Q) 1,331.0

○ **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의 첨단 투자**가 다수 유입되며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 등 **우리경제를 체감되는 성장 본궤도**에 올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

* 전기·전자(14.5억 달러, +113.5%), 기계장비(5.4억 달러, +49.2%), 화공(3.4억 달러, +69.5%) 등

○ **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**** 등을 통해 **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지속 확대**되면서 **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** 기대

* 비수도권 투자규모 : ('22.1Q) 9.4억 달러·비중17.2% → ('23.1Q) 13.7억 달러·비중24.4% → ('24.1Q) 22.5억 달러·비중31.9%

** 비수도권 지원 :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시 지자체 부담 완화, 해외 IR활동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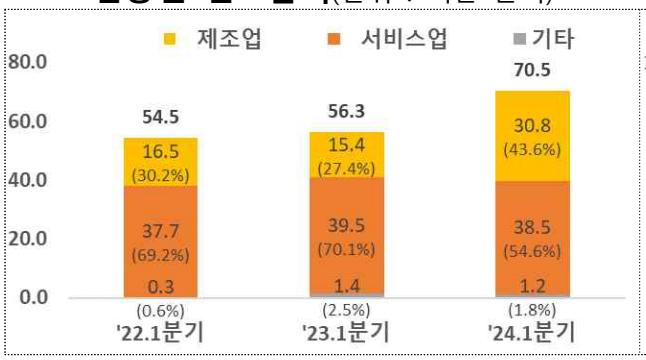
Ⅱ. 세부 동향(신고 기준, 업종별·국가별·유형별·자금별·지역별)

1. 업종별

□ **(금액) 제조업**(30.8억 달러, +99.2%, 비중 43.6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38.5억 달러, △2.5%, 비중 54.6%), **기타 업종**(1.2억 달러, △11.8%, 비중 1.8%) **감소**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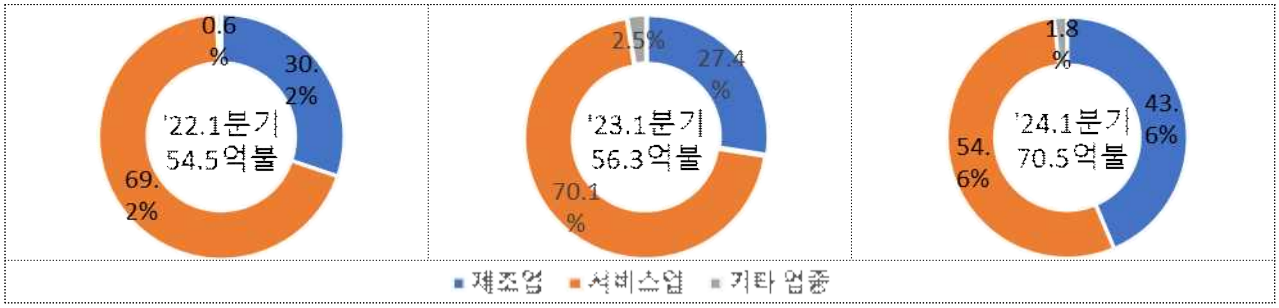
< 업종별 신고금액(단위 : 백만 달러) **>**



< 업종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**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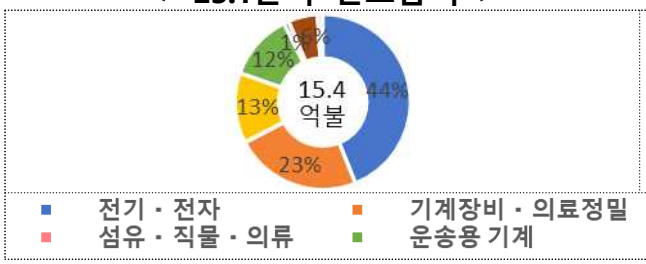


< 업종별 FDI 비중 >



○ **(제조업) 30.8억 달러**(+99.2%, 비중 43.6%)

< '23.1분기 신고금액 >



< '24.1분기 신고금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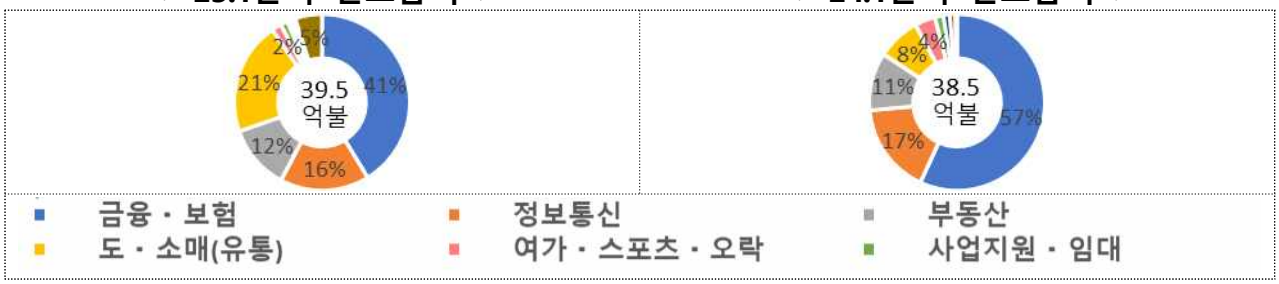


- **(증가업종) 전기·전자**(14.5억 달러, +113.5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5.4억 달러, +49.2%), **의약**(4.7억 달러, +88,471.5%), **화공**(3.4억 달러, +69.5%) 등

- **(감소업종) 운송용기계**(1.1억 달러, △44.1%) 등

○ **(서비스업) 38.5억 달러**(△2.5%, 비중 54.6%)

< '23.1분기 신고금액 > **< '24.1분기 신고금액 >**



- **(증가업종) 금융·보험**(21.9억 달러, +34.3%), **여가·스포츠·오락**(1.4억 달러, +103.7%) 등
- **(감소업종) 정보통신**(6.4억 달러, △1.2%), **부동산**(4.1억 달러, △13.0%), **도·소매**(3.1억 달러, △62.6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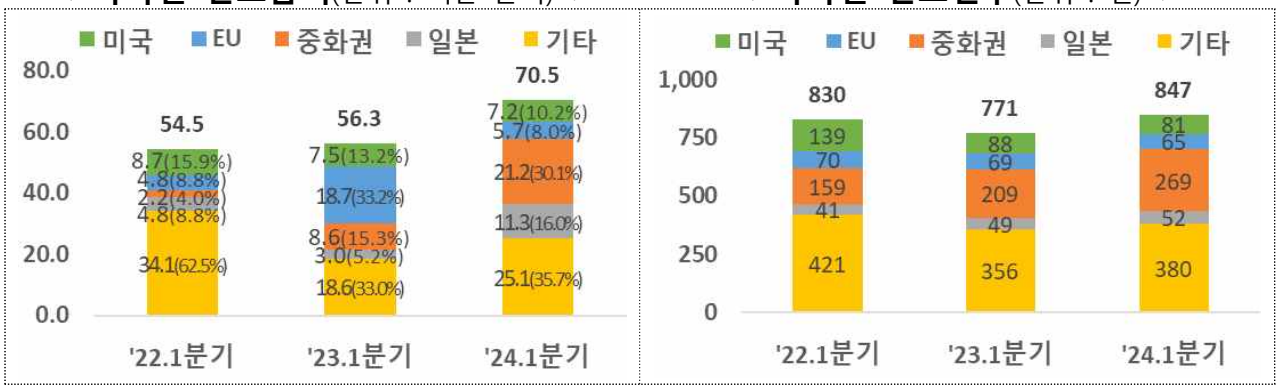
□ **(건수) 제조업**(125건, +34.4%), **서비스업**(705건, +9.5%) **증가**, **기타업종**(17건, △50.0%) **감소**

2. 국가별

※ 중화권 : 중국, 홍콩, 대만

□ **(금액) 미국**(7.2억 달러, △3.4% 비중 10.2%), **EU**(5.7억 달러, △69.8%, 비중 8.0%)는 **감소**, **중화권**(21.2억 달러, +146.7%, 비중 30.1%), **일본**(11.3억 달러, +281.8%, 비중 16.0%), **기타 국가**(25.1억 달러, +35.1%, 비중 35.7%)는 **증가**

< 국가별 신고금액(단위 : 백만 달러) **>** **< 국가별 신고건수**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미국) 7.2억 달러**(△3.4%, 비중 10.2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.6억 달러, +10.2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5.6억 달러, △6.6%) **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5.8억 달러, △22.4%) **감소**, **M&A**(1.4억 달러, +5,732.2%) **증가**

○ **(EU) 5.7억 달러**(△69.8%*, 비중 8.0%)

* 전년도 대형투자[A社(서비스·M&A) 10.5억 달러, B社(제조·그린필드) 3.0억 달러 등]에 의한 기저효과

※ 영국 : 0.6억 달러(△71.7%), EU+영국 : 6.2억 달러(△70.0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.4억 달러, △69.8%), **서비스업**(4.1억 달러, △70.6%) **모두 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2.5억 달러, △66.2%), **M&A**(3.1억 달러, △72.2%) **모두 감소**

○ **(중화권) 21.2억 달러**(+146.7%, 비중 30.1%) ※ 중화권 : 중국, 홍콩, 대만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6.0억 달러, +495.9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5.2억 달러, △12.3%) **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16.1억 달러, +103.9%), **M&A**(5.1억 달러, +644.9%) **모두 증가**

○ **(일본) 11.3억 달러**(+281.8%, 비중 16.0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0.5억 달러, +436.7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0.8억 달러, △19.2%) **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6.5억 달러, +173.1%), **M&A**(4.7억 달러, +745.7%) **모두 증가**

○ **(기타 국가) 25.1억 달러**(+35.1%, 비중 35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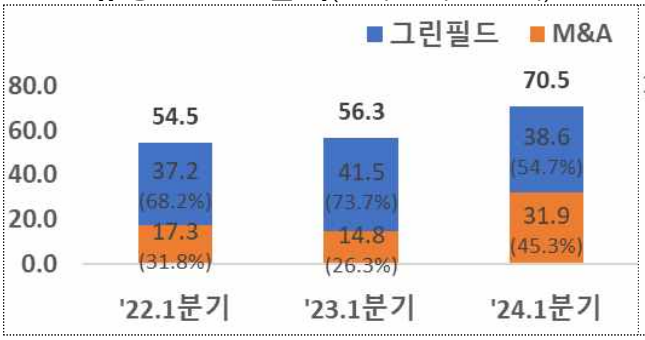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.3억 달러, △73.8%) **감소**, **서비스업**(22.8억 달러, +82.3%) **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7.6억 달러, △53.3%) **감소**, **M&A**(17.6억 달러, +646.4%) **증가**

□ **(건수) 중화권**(269건, +28.7%), **일본**(52건, +6.1%), **기타 국가**(380건, +6.7%) **증가**, **미국**(81건, △8.0%), **EU**(65건, △5.8%) **감소**

3. 유형별

□ **(금액) 그린필드**(38.6억 달러, △7.1%, 비중 54.7%) **감소**, **M&A**(31.9억 달러, +115.5%, 비중 45.3%) **증가**

< 유형별 신고금액(단위 : 백만 달러) **>**



< 유형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그린필드) 38.6억 달러**(△7.1%)

- **제조업**(21.1억 달러, +44.8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16.3억 달러, △38.3%) **감소**

○ **(M&A) 31.9억 달러**(+115.4%)

- **제조업**(9.6억 달러, +1,017.7%), **서비스업**(22.2억 달러, +70.1%) **모두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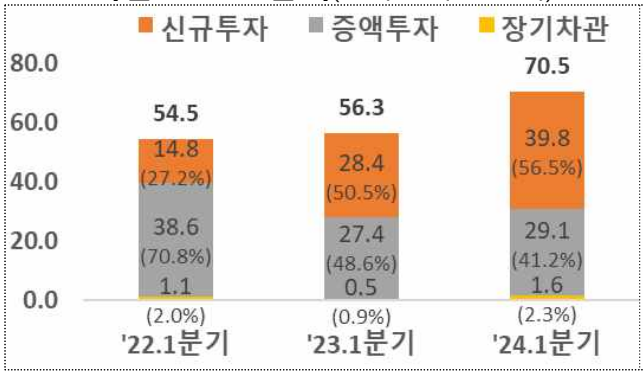
□ **(건수) 그린필드**(787건, +11.8%) **증가**, **M&A**(60건, △10.5%) **감소**

4. 자금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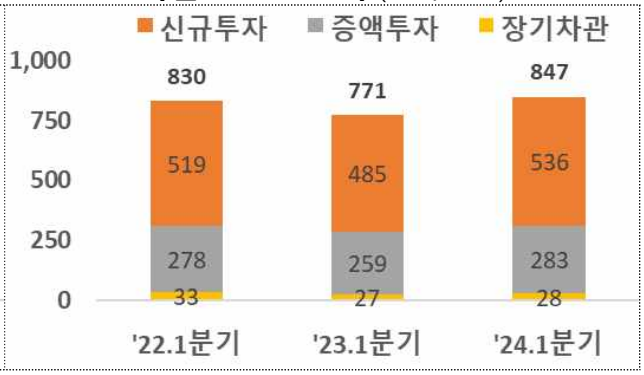
□ **(금액) 신규투자**(39.8억 달러, +40.1%, 비중 56.5%), **증액투자**(29.1억 달러, +6.1%, 비중 41.2%) **모두 증가**

* 신규투자 :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
증액투자 :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신고금액(단위 : 백만 달러) **>**



< 자금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신규투자) 39.8억 달러**(+40.1%)

- **제조업**(14.3억 달러, +80.4%), **서비스업**(25.4억 달러, +25.7%) **모두 증가**

○ **(증액투자) 29.1억 달러**(+6.1%)

- **제조업**(15.8억 달러, +116.4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12.1억 달러, △36.0%) **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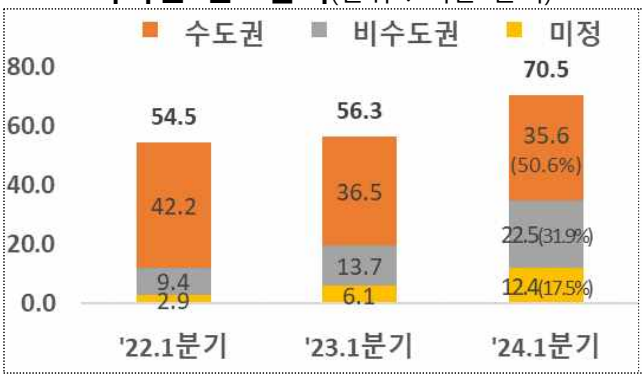
□ **(건수) 신규투자**(536건, +10.5%), **증액투자**(283건, +9.3%) **모두 증가**

5. 지역별

※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미정(12.4억 달러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□ **(금액) 수도권**(35.6억 달러, △2.4%, 비중 50.6%) **감소**, **비수도권**(22.5억 달러, +63.9%, 비중 31.9%) **증가**

< 지역별 신고금액(단위 : 백만 달러) **>**



< 지역별 신고건수(단위 : 건) **>**



○ **(수도권) 35.6억 달러**(△2.4%)

- **제조업**(7.0억 달러, +213.4%) **증가**, **서비스업**(28.7억 달러, △15.3%) **감소**

  * 서울(27.37억 달러, △5.3%), 인천(0.43억 달러, △71.9%), 경기(7.84억 달러, +28.1%)

○ **(비수도권) 22.5억 달러**(+63.9%)

- **제조업**(15.0억 달러, +108.1%), **서비스업**(6.3억 달러, +12.1%) **모두 증가**

  * 증가 시·도 : 대전(4.95억 달러, +26,175.3%), 충북(3.15억 달러, +519.7%), 제주(2.43억 달러, +841.6%), 부산(2.07억 달러, +552.9%), 경북(2.06억 달러, +749.3%), 대구(0.65억 달러, +287.6%), 충남(0.62억 달러, +134.7%), 경남(0.59억 달러, +441.9%)

  * 감소 시·도 : 전북(4.38억 달러, △25.1%), 전남(1.23억 달러, △2.3%), 울산(0.30억 달러, △29.3%), 강원(0.03억 달러, △85.5%), 광주(0.02억 달러, △99.4%), 세종(0.0억 달러, △100%)

□ **(건수) 수도권**(553건, +2.4%) **증가**, **비수도권**(131건, △23.4%) **감소**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본 자료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4년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